



# 해외보험리포트

---

## 영국편

---

임석희, 정수진



## Executive Summary

영국은 금융, 유통 등 서비스 산업과 생명과학, 항공우주, IT 등 첨단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여 2023년 기준 세계 6위의 경제대국임. 2021년 기준 영국의 전체인구는 약 6,702만 명으로 추정되며, 그 중 잠재 소비인구로 판단할 수 있는 16~64세는 3,818만 명으로 약 64.1%를 차지함. 런던 금융시장은 뉴욕과 함께 세계 2대 금융시장의 하나로 금융업은 부가 가치, 세금 등 여러 측면에서 영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음. 영국은 2016년 브렉시트 이후에도 큰 충격 없이 양호한 경제성장을 이뤘으나, 최근 국제 전쟁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됨

영국은 2013년 금융 서비스법 도입으로, 기존 금융 서비스청(FSA)을 대체하는 금융감독청(FCA)과 건전성감독청(PRA)을 설립함. 영국에서 보험회사 면허를 신청하는 회사는 PRA에 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PRA는 생명보험 사업은 9개, 비생명보험 사업은 18개 범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음. 영국 (재)보험회사에 대한 자본 요건은 SolvencyII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었으며, 브렉시트 이후 재무부는 보험 부문 건전성 규제 개혁을 통해 2023~2024년에 초안 법안을 발표함. 모든 금융 서비스는 FCA의 권한하에 금융옴부즈만서비스(FOS)에 따라 규제되고 있으며, 보험회사 및 보험 중개인은 FOS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외국 (재)보험회사가 영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영국 규제 당국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함

영국 보험시장은 2023년 기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에 해당하며, 보험침투도와 보험밀도는 각각 9.7%, 약 4,759 미국 달러임. 전체 보험시장에서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 비중이 63%로, 이 중 연금(퇴직·개인) 상품이 거의 대부분(90%)을 차지함. 2023년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13.4% 증가하였으며, 상위 5개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65%, 자산은 채권투자가 약 45%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음. 한편, 손해보험은 2023년 수입보험료 상승률이 전년 대비 16.6%였으며 종목별로는 재산보험(33%)과 자동차보험(25%)의 비중이 높음. 손해보험시장은 상위 5개사 시장점유율이 30%를 하회해 시장집중도는 약한 편임. 손해보험업 자산운용은 채권(62.7%)과 집합투자사업(14.6%)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I

## 국가 개요 및 경제

### 1. 국가 개요

- 영국은 금융, 유통 등 서비스 산업과 생명과학, 항공우주, IT 등 첨단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여 2023년 기준 세계 6위의 경제대국임<sup>1)</sup>
  - 2023년 영국의 GDP는 약 3조 3,320억 달러 규모로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있으며<sup>2)</sup>, 2022년 기준 세계 8위 수준 무역 국가임
    - 국내 총생산 대비 교역 규모의 비중이 약 59% 수준으로 교역 비중이 미국, 중국 등 주요 무역 국가를 상회하는 대외교역 지향 국가임
    - 미국, 독일, 중국이 주요 3대 교역국이며 이외 유럽 국가와의 교역 비중이 높은 편이고, 미국과는 수출이, 중국과는 수입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sup>3)</sup>
  - 산업구조의 경우 1970년대에는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였으나, 이후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경제구조가 재편되어 왔음
    - 2023년 2분기 기준으로 영국 경제(GDP)에서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9% 수준인 반면, 제조업의 비중은 9.4%에 불과함
    - 영국의 금융경쟁력은 세계 1위의 외환 및 장외파생 상품거래,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자산운용 규모를 자랑하는 명실상부한 국제금융의 중심지임<sup>4)</sup>
- 2023년 기준 영국의 전체인구는 약 6,835만 명으로 추정되며<sup>5)</sup>, 그 중 잠재 소비인구로 판단할 수 있는 16~64세는 3,818만 명으로 약 64.1%를 차지함<sup>6)</sup>
  - 평균연령은 2010년 39.3세 → 2023년 40.5세로 높아졌으며, 고용 측면에서 영국의 16~64세 인구의 75.8%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2022년 OECD 평균인 69.47%보다 높음

1) 외교부(2023), 영국 개황

2) IMF(2023. 10),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23

3) KOTRA 국가정보(2023)\_영국

4) 금융중심지 평가 순위(2023. 9월, the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34) : ① 뉴욕 ② 런던 ③ 싱가포르 ④ 홍콩 (서울 11위)

5) World Bank Open Data - United Kingdom

6) KOTRA 국가정보(2023)\_영국

- 2022년 합계 출산율은 1.57명이었으며, 출생아 수는 59만여 명으로 나타나 1977년(57만여 명) 이후 최저치를 기록함
- 2023년에 약 120만 명이 영국으로 이주했고 47만 9천여 명이 영국에서 외국으로 이주하여 순이주 수치는 78만 2천여 명임<sup>7)</sup>

〈표 1〉 영국 주요 국가 지표<sup>1)</sup>

항목	지표 현황	항목	지표 현황
면적	24만 1,930km <sup>2</sup> (한반도의 1.1배)	인구	6,835만 명(세계 20위)
생산가능인구	약 3,750만 명 (전체인구 대비 62.9%)	고령화 비율	18.6%
소비자물가상승률	6.7%	경제성장률	0.1%
GDP	3조 3,400억 USD	1인당 GDP	40,700USD
기대 수명(남)	78.3세	기대 수명(여)	81.9세

주: 1) 기대 수명(2021), 생산가능인구(2021), 고령화 비율(2021) 외에는 2023년 수치임

자료: The World Bank(2023), World Bank Open Data - United Kingdom; KOTRA 국가정보(2023)\_영국; 영국 국가통계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ONS)

○ 런던 금융시장은 뉴욕과 함께 세계 2대 금융시장의 하나로, 뉴욕의 금융시장이 자국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발전해 온 반면, 런던은 활발한 대외교역 등으로 인해 금융시장이 발달함<sup>8)</sup>

- 런던 금융시장의 생성은 18세기 초 국제무역의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실물거래에 따르는 자금수요가 뒷받침되었고, 선박·해운의 위험분산 목적으로 금융·보험 수단이 활용됨에 기인함
  - 1970~1980년대에 걸쳐 기관투자자의 성장, 금융정보화에 따른 급격한 변화를 수용하고, 외환시장 자유화(1979) 및 증권시장 자유화(1986, Big Bang) 등 일련의 개혁 조치를 통해 기반을 마련함
- 금융업은 부가가치, 고용, 금융 서비스 수치, 세금 측면에서 다양하게 영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음
  - 2021년 금융분야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총 1,736억 파운드로 영국 전체 창출 부가가치의 8.3%를 차지(런던은 그 중 50%)했고, 2022년 1/4분기 금융 분야는 약 118만 명(전체 고용의 3%)을 고용함
  - 2021년 중 447억 파운드의 금융 서비스수지 흑자를 기록했으며, 756억 파운드의 세금을 납부하여 전체 세수의 10%를 부담함

○ 영국은 외국인 투자만을 명시적으로 지목하는 특정 심사제도나 법령이 없었으나, 2021년 4월 국가 안보 및 투자 법안(National Security and Investment Bill; NSI)이 여왕의 재가를 받아 2022년 1월 발효됨<sup>9)</sup>

<sup>7)</sup> UK Parliament(2024, 12), Migration statistics

<sup>8)</sup> 외교부(2023), 영국 개황

<sup>9)</sup> KOTRA 국가정보(2023), 영국

- NSI는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국 정부가 인수(acquisitions) 등의 비즈니스 거래를 조사하고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첨단소재, AI, 데이터인프라, 에너지 등 17개 민감분야에서 인수에 관해 정부에 알려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으며,<sup>10)</sup> 기업과 투자자가 영국에서 비즈니스를 수행할 때 필요한 확실성과 투명성을 제공함

## 2. 경제

- 영국 경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73년 오일쇼크 이전까지 프랑스, 독일 등 여타 서유럽 국가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비교적 높은 성장을 지속하였음(1960~1973년까지 GDP 성장률 평균 2.9%, OECD)<sup>11)</sup>
  - 오일 쇼크 이후 1970년대 말까지는 두 자릿수의 물가상승률, 높은 실업률 등 경기부진이 계속되어 소위 ‘유럽의 환자(the sick man of the Europe)’로 불리기도 하였으며, IMF로부터 230억 파운드 의 긴급 구제금융(1977년)을 받기도 하였음
  - 1979년 대처 총리의 보수당 집권 이후 1980년대 말까지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or Thatcherism) 기 조하에 국영기업의 민영화, 감세, 금융 빅뱅(Big Bang) 등 주요 부문의 규제완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하였음
    - 대처 총리의 집권 초기에는 제2차 오일쇼크와 겹쳐 GDP가 5.9%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대처 정부의 지속적인 개혁 조치로 1988년에는 GDP 성장률이 5%에 이르는 등 경제가 회복됨
  - 1997년 총선에서 토니 블레어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이 집권하였는데, 블레어 총리 집권 10년 동안 영국 경제는 2008년 2분기까지 40분기 연속 성장을 시현함
    - 1990년대 이후 영국 경제는 여타 유럽국가보다도 견실한 성장을 지속(1992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2.7% 경제성장률 기록)하였고, 특히 금융 부문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증가하였음

〈표 2〉 영국 주요 경제정책 변천

시기	총리(당)	경제 상황	주요 정책 내용
1970~1974	에드워드 히스 (보수당)	제4차 중동전, 석유파동, 에너지 위기 및 파업	• 유럽경제공동체(EEC) 가입 • 산업관계법(Industrial Relations Act) 제정
1974~1976	헤럴드 윌슨 (노동당)	높은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유럽의 환자(the sick man of the Europe)	• 임금 인상
1976~1979	제임스 캘러헌 (노동당)		• IMF로부터 긴급 구제금융 (1977년, 230억 파운드)

10) 이를 ‘신고 대상 인수(notifiable acquisitions)’라 함

11) 외교부(2023), 영국 개황

〈표 2〉 계속

시기	총리(당)	경제 상황	주요 정책 내용
1979~1990	대처(Thatcher) (보수당)	제2차 오일쇼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자유주의 기초하에 국영기업의 민영화, 감세, 공공지출 감소 등 주요부문 규제완화</li> <li>• 고용보다 물가 안정 중시</li> <li>• 반EC 정책, 주민세(Poll Tax) 도입 추진</li> </ul>
1990~1997	존 메이저 (보수당)	걸프 전쟁 1992년 검은 목요일 (파운드화 가치 대폭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EC 정책, 주민세, 사회보장문제 등에 유연한 정책</li> <li>• 고정 EU환율 체제(Exchange Rate Mechanism: ERM) 탈퇴</li> </ul>
1997~2007	토니 블레어 (노동당)	유럽 평균 물가상승률 하회 낮은 실업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자율의 조정권한을 영국의 중앙은행(Bank of England)에 이양</li> <li>• 재정안정화준칙(Code of Fiscal Stability) 적용</li> <li>• 복지로부터 일터로(Welfare to Work) 정책</li> </ul>
2007~2010	고든 브라운 (노동당)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실업자 수 급증, 경제성장률 하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형은행의 국유화</li> <li>• 영국인 우선 노동개혁을 추진했으나 실패</li> </ul>
2010~2016	데이비드 캐머런 (보수당)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복기 제조업 침체 실질임금 하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총량을 유지하는 원 인 원 아웃(One-in, One-out) 제도 도입</li> <li>• 재정건전화 정책 등을 통한 경제회복과 국가 신용도 유지</li> <li>• 국민투표로 영국의 EU 탈퇴 결정(Brexit)</li> </ul>
2016~2019	테레사 메이 (보수당)	브렉시트 이후 불확실성으로 성장세 둔화, EU 탈퇴시한 연장 미-중 무역분쟁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저임금 인상</li> <li>• EU와 브렉시트 탈퇴 협상</li> <li>• 재정건전화 계획 기조 유지</li> </ul>
2019~2022	보리스 존슨 (보수당)	EU탈퇴 관련 전환기간 종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역성장 러-우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및 물가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와 통상관계협정에 따라 새로운 교역관계 설정</li> <li>• 코로나 시기 검역 강화, 이동제한 조치 등</li> <li>• 2021년 이후 빠른 백신 접종, 점진적 경제활동 정상화, 확장적 재정정책</li> </ul>
2022~2022	리즈 트러스 (보수당)	기록적인 인플레이션 파운드화 폭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규모 감세 추진</li> <li>• 경제정책 실패로 46일 만에 사퇴(역대 최단기 총리)</li> </ul>
2022~2024	리시 수낙 (보수당)	코로나 이후 회복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 엔데믹 이후 재정 건전성 확보 재추진</li> <li>• 팬데믹 기간 동안 자영업자 지원금, 중소기업 대출 보증 프로그램, 레스토랑 할인 프로그램(Eat Out to Help Out) 등 추진</li> </ul>
2024. 7 ~현재	키어 스타머 (노동당)	경제성장 둔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증세 추진</li> <li>• 이민자 수를 줄이고 국경 통제 강화</li> </ul>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0), "영국의 재정제도"; KOTRA 국가정보(2023)\_영국; 외교부(2023), 영국 개황 등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함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8년 2/4분기 이후 5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2009년에는 대공황 이후 가장 큰 폭인 -4.1%의 경제침체를 경험함<sup>12)</sup>
  - 2010년 중 일시 회복되었으나, 유로존 재정위기 심화, 유가상승, 소비부진 등으로 2011~2012년 1% 중반대의 저조한 성장을 함
    - 2012년 하반기 런던올림픽을 기점으로 2013년부터 3년간 2% 이상의 성장세를 보임
  
-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직후에도 큰 충격 없이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유지하였으나 2017~2019년 들어 1% 중반대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됨
  - 성장률 둔화의 주요 요인은 △파운드화 약세 등에 따른 물가 상승과 저조한 임금상승률이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이어져 가계의 소비지출(2018년 현재 영국 GDP의 62.3%) 위축 △브렉시트 협상의 불확실성(노동력 우려)으로 기업투자 지연 등임
    - 가계 소비지출(% , 전년 대비): 3.7('16년)→1.0('17년)→1.3('18년)→1.1('19년), 총자본형성(투자, %, 전년 대비): 4.4('16년)→2.8('17년)→0.4('18년)→1.5('19년)
  
-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300년 만에 가장 낮은 -10.4%를 기록한 이후 2021년 8.7%, 2022년 4.3% 등 강력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러-우 전쟁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다시 둔화됨
  - 2020년 영국의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0.4%였으며, 이는 스페인(-11.6%)에 이어 유럽 지역 내 두 번째로 큰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임
  - 2010년 집권한 영국 보수당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중시하는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해 왔으나,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경제 회복에 보다 중점을 둔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함
    - 이런 정책 기조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2021년 8.7%, 2022년 4.3%로 회복세가 강해졌음
  - 그러나 2022년 러-우 전쟁으로 에너지 비용이 급등했으며 식량 수입률이 높은 영국은 식품분야에서 특히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함
    - 2023년 2월 영국의 식료품 가격 인상률은 18.2%에 달하는 등 다른 물품보다 특히 상승률이 높았음

<sup>12)</sup> 외교부(2023), 영국 개황



# II

## 보험산업 관련 제도 및 규제

### 1. 보험산업 관련 주요 법 및 규제 변천

- 영국 및 웨일스의 법 체계는 관습법(Common Law)과 성문법(Statute Law)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영국 보험 입법의 주요 기반은 2001년에 발효된 금융 서비스 및 시장법 2000(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FSMA 2000)임
  - FSMA는 기존의 은행법(Banking Act), 보험회사법(Insurance Companies Act), 금융 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Act) 등을 폐지하고 EU 지침을 통합하여 만든 금융통합법적인 성격을 가짐<sup>13)</sup>
    - 모든 형태의 금융기관 행위를 감독할 수 있는 단일하고 통일성 있는 입법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금융산업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됨
    - FSMA 2000이 발효되며 영국의 모든 예금 취급, 보험 및 투자 사업을 규제하기 위해 단일 법정 기관인 금융 서비스청(Financial Services Authority; FSA)을 설립함<sup>14)</sup>
  - 2013년에 금융 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Act)을 도입하여 기존의 FSA를 대체하는 금융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과 건전성감독청(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PRA)을 설립함
- 영국은 2015년에 보험법(Insurance Act)을 제정하여 상업 보험법을 명확화하였으며, 2016년 8월 12일부터 발효되어, 이후에 체결되거나 변경된 모든 보험, 재보험 계약은 이 법의 적용을 받음
  - 이는 1906년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이후 영국 보험법의 가장 중요한 개혁을 의미하며, 2006년 법률위원회가 시작한 법률 개혁 과정의 결과물로, 보험 사업의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법을 현대화하며 명확히 하기 위해 설계됨
    - 보험법은 1906년 해상보험법의 일부 주요 조항을 수정하지만, 해상보험법이 폐지되지는 않음
  - 법률위원회가 2006년 1월에 보험법의 현 상태를 검토하여 공동 연구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권리법(2010), 소비자 보험(공개 및 진술)법(2012), 보험법(2015)이 제정됨

<sup>13)</sup> KDI(2003), “[금융포럼] 금융법 통합: 영국사례”

<sup>14)</sup> GOV.UK(2016), “HMRC internal manual - General Insurance Manual”

○ 영국 연금의 경우, 연금규제청(The Pension Regulator; TPR)에서 근로 기반 연금제도(Workplace Pension Schemes)를 감독함

- TPR은 2004년 연금법에 따라 이전의 OPRA(Occupational Pensions Regulatory Authority, 직업연금 규제 기관)를 대체하여 설립되어 연금제도에 부과된 세금으로 자금을 조달함
- 2008년 연금 개혁에 따라 도입된 고용주 자동 가입 의무 감독 및 2011년 출시된 NEST(National Employment Savings Trust, 국가고용저축신탁) 제도의 기본 직장 연금 옵션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수행함
  - NEST 제도는 영국 정부에서 시행하는 연금제도로, 고용주가 자격을 갖춘 근로자를 자동으로 직장 연금에 가입시켜야 하는 의무이며, 적절한 저비용의 연금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

(표 3) 영국 주요 보험산업 관련 법 및 규제 변천

연도	보험산업 관련 주요 법률
1906	• Marine Insurance Act : 해상보험법 제정
1982	• Insurance Companies Act : 보험회사법 제정
1986	• Financial Services Act : 금융 서비스법 제정
2001	•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FSMA 2000) : 금융 서비스 및 시장법 개정
2004	• The Pension Act : 연금법 제정
2013	• Finance Act 2012 : 생명보험사를 위한 새로운 세제 도입, SolvencyII 시행과 함께 세제 체계를 간소화하고 영국 기업세 체계에 더 잘 맞게 조정 • Financial Services Act 2012 : FSMA 2000 개정 및 금융 서비스 산업(로이즈 포함)을 위한 새로운 금융 규제 체계 수립, 건전성감독청(PRA), 금융감독청(FCA) 설립 • Finance Act 2013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동보고 기준하에서 금융기관의 자동 정보 교환(AEOI) 조치 도입, 2017년부터 생명보험 계약 포함
2016	• SolvencyII Regulation 2015 : EU SolvencyII 지침(2009/138/EC)을 영국 법률에 반영 • Insurance Act 2015 : 계약 전 고지 의무, 허위 진술의 효과, 보험 약관 내 보증 조항의 효과, 사기성 청구에 대한 보험사의 구제책에 대한 상업 보험법 명확화 • Bank of England and Financial Services Act 2016 : FSMA 2000을 개정하여 PCC(Protected Cell Companies)와 같은 “transformer vehicles” 규제를 허용

〈표 3〉 계속

연도	보험산업 관련 주요 법률
2017	• Enterprise Act 2016 : 2015 보험법을 개정하여 보험사의 보험 청구 지연 지급에 대한 특정 조건 도입
2018	• Insurance Distribution(Regulated Activities and Miscellaneous Amendments) Order 2018 : EU 보험 배포 지침(IDD)을 시행하며, 보험 중개인의 최소 전문 책임 보험 한도를 상향 조정
2020	• SolvencyII and Insurance(Amendment etc) (EU Exit) Regulations 2019 : SolvencyII 체제가 영국 내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
2023	•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23(FSMA 2023) : 규제 기관에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고 영국 금융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 강화 목표 설정

자료: AXCO(2023), "Life and Benefits Insurance Market Reports"; AXCO(2023), "Non-Life Insurance Market Reports"; legislation.gov.uk를 참고하여 작성함

## 2. 보험산업 감독과 규제

○ 영국은 2012년 금융 서비스법에 따라 금융 서비스 산업의 감독 체계가 개혁되어 금융 서비스청(FSA)이 폐지되고 금융감독청(FCA)와 건전성감독청(PRA)이라는 이중 규제 기관이 설립됨

- 2023년 6월, 금융 서비스 및 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FSMA 2023)이 통과되어 PRA와 FCA가 금융시장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규칙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함
  - 또한, 영국 의회와 재무부(HM Treasury)가 규제 기관의 규칙 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통해 규제 기관의 책임성과 감시가 강화됨
- PRA는 영국 중앙은행의 자회사로, 예금기관, 보험회사, 대형 투자 단체와 같은 중요한 회사로 간주되는 기업들의 건전성 규제를 담당함
  - PRA 규칙집(PRA Rulebook)에는 "기업은 PRA의 감독 목적에 필요한 정보를 PRA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SolvencyII 대상 기업의 보고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PRA의 연간 자금 조달 요구액은 3억 1,200만 파운드(미화 4억 달러)로 전년도 대비 3% 감소하였으며, 이 중 4,330만 파운드는 손해보험, 410만 파운드는 Lloyd's와 관련됨
- FCA는 금융 서비스 회사의 행위를 규제하는 독립 기관으로, 소비자 보호와 시장 감독에 중점을 두며, 특히, PRA의 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투자 회사와 보험 중개인 등의 재무 건전성을 관리함
  - 신청 수수료와 연회비, 허가 변경 시 부과되는 수수료 등 인가된 금융회사에 부과되는 수수료로 전액 재정을 충당하며 FCA는 징수한 수수료를 통해 금융 옴부즈만 서비스(Financial Ombudsman Service), 금융 서비스 보상 제도(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및 머니 어드바이

스 서비스(Money Advice Service)의 자금을 조달함

-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FCA의 연간 자금 조달 요구액은 6억 8,420만 파운드(미화 8억 7,7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8.5% 증가함

- 중앙은행(BOE) 내에 금융정책위원회(Financial Policy Committee; FPC)를 설립하여 금융 안정성을 보장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Lloyd's의 자율 규제 전통은 1982년 Lloyd's Act에 명시되어 있으며 현재의 영국 규제 체계하에서 Lloyd's는 PRA와 FCA 양측의 규제를 받고, 일부 감독 요소는 Lloyd's 의회(Council of Lloyd's)가 담당함

- 수 세기에 걸쳐 진화해 온 Lloyd's의 비즈니스 환경은 매우 복잡하며 고유의 관행과 법적 원칙을 가지고 있어, 규제 기관은 직접 및 간접 규제를 결합하면서도 Lloyd's 감독에 대한 법적 의무를 유지하기로 결정함

## 가. 영국 금융감독 관련 최근 변화

○ FSMA 2023은 금융 서비스 및 시장과 관련된 EU 잔존 법률의 폐지 등 영국 금융 서비스 시장의 구조와 운영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근거가 됨

- 영국 금융 서비스 부문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가 목표이며, 법률 대부분이 규제 기관의 규칙에 포함됨
- 법률은 규제 기관에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고 규제 기관에 대한 영국 의회와 재무부의 책임과 감시를 강화함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2017년 5월에 발표한 새로운 회계기준인 IFRS17이 세금에 미칠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2022년 11월 보험 계약(세금)(회계 기준 변경) 규정 2022를 발표함

- 새로운 보험 계약 규정은 IFRS17로 인해 예상되는 세금의 증가분을 10년 동안 분배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나. 보험회사의 면허제도와 사업 범위

○ 영국에서 보험회사 면허를 신청하는 회사는 PRA에 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요구사항은 “지침(directive)”으로 분류된 보험회사와 상호공제조합(제한 없는 상호 생명보험 제공자 포함)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됨

- 요구사항은 회사 핵심 정보, 회사의 세부 전략 및 시스템 등에 관한 계획, 3년 재무 예측, 신용 등급 보

고서, 인력 및 통제 기능, 법적 요구사항 및 규제 준수를 위한 내부 정책과 절차, 추정된 총 보험료와 계리적 준비금, 운영 방법 및 유통 채널 정보 등이 있음

- PRA는 생명보험 사업은 9개의 범주, 비생명보험 사업은 18개 범주로 나누어 관리하며, 보험회사는 각 사업 분야에 대해 활동하기 전에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생명보험 사업의 범주는 생명 및 연금, 결혼 및 출생, 연동형 장기 보험(Linked Long-term), 종신 보험, 토티 연금, 자본 상환 상품, 연금 기금 관리, 단체 보험, 사회 보험으로 나뉨
  - 비생명보험 사업의 범주는 사고, 질병, 육상 차량, 철도 차량, 항공기, 선박, 운송 중 화물, 화재 및 자연 재해, 재산 피해, 자동차 책임, 항공기 책임, 선박 책임, 일반 책임, 신용, 보증, 기타 재무 손실, 법률 비용, 지원으로 나뉨
  - 생명보험과 비생명보험 사업을 모두 운영할 수 있는 경우는 1982년 1월 1일 이전에 복합 보험사(composite insurer)로 허가를 받은 경우와 재보험이나 개인 상해(Personal Accident; PA) 및 질병에 국한된 비생명보험 사업으로 제한된 경우만 가능함

#### 다. 보험회사 최소 자본금과 지급여력제도 규제

- 영국 (재)보험회사에 대한 자본 요건은 SolvencyII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었으며, 2022년 10월 19일부터 물가상승률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짐
  - SolvencyII와 PRA 규칙집의 요구사항에 따르면, 모든 보험회사는 최소 요구자본(Minimum Capital Requirement; MCR)을 가져야 함
    - MCR은 지급여력 요구자본(Solvency Capital Requirement; SCR)의 25% 이상, 45% 이하를 유지해야 하고,<sup>15)</sup> 이는 추가 요구자본(Capital Add-on)을 포함함
    - MCR은 또한, 생명보험 회사는 400만 유로, 건강보험 회사는 270만 유로, 순수 재보험회사는 390만 유로 이상이어야 하며, MCR 위반 시, 주요 규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SolvencyII는 정량적 요건, 정성적 요건, 감독 보고 및 공시의 3개 축(pillars)으로 구성됨
  - 정량적 요건은 자산과 부채 평가에서 시장 일관성(Market-Consistent) 접근 방식에 기반한 SCR 및 MCR 계산이고, 정성적 요건은 거버넌스, 위험 관리, 감독 당국의 효과성임
    - SCR은 파산 가능성을 0.5%로 제한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을 나타내며, 매년 또는 회사의 위험 프로파일 일이 크게 변경될 때 계산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됨

<sup>15)</sup> MCR의 계산 공식은 2015년 EU 시행 규정(Delegated Regulation (EU) 2015/35)에 명시되어 있음

- SCR 계산의 표준 공식은 기본 SCR, 운영 위험에 대한 자본 요구사항, 기술적 준비금 및 이연법인세의 손실 흡수 능력에 대한 조정으로 구성됨
  - MCR은 회사의 운영 허가가 철회될 수 있는 자본 수준을 나타냄
- 브렉시트 이후 재무부는 2022년 4~7월까지 보험 부문 건전성 규제 개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 2023~2024년에 초안 법안이 발표됨
- 개혁의 주요 내용은 생명보험회사의 위험 마진 감소, 기술적 준비금(Technical Reserves)<sup>16)</sup> 투자 유연성 증가, 매칭 조정(Matching Adjustment) 내 신용 위험에 대한 민감한 접근 방식, 할인율(Discount Rate) 변경이 있음
    - 장기보험(특히, 연금의 장수 위험)은 위험 마진이 약 65% 감소했으며, 기술 준비금의 투자 범위를 확대하고 향후 10년 동안 보험회사가 약 1,000억 파운드를 추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함
  -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 보험 및 재보험 사업(건전성 요건)(위험 마진) 규정 2023의 주요 내용은 위험 마진 계산 개혁, 정기 감독 보고서(RSR) 폐지, 보험사가 제출해야 하는 정량 보고 템플릿(Quantitative Reporting Templates; QRTs) 수 감소 등이 있음
  - 2024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보험 및 재보험 사업(건전성 요건) 규정 2023에 따라 보험회사가 Solvency II의 적용 범위에 포함될지, 덜 제한적인 NDF(Non-directive firm, 비지침 기업) 규칙을 따를지 결정하는 기준인 인수 보험료의 한도를 기존보다 1,000만 파운드가 증가한 2,500만 파운드로 상향 조정됨
    - 규정의 주요 내용으로 매칭 조정(Matching Adjustment)<sup>17)</sup> 규칙을 개정하여 기존의 매칭 조정 자산 기준을 완화하여 더 다양한 자산을 포함할 수 있게 하고, 위험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등 보험회사들이 자본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보험 계약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
    - 보험회사가 부채와 일치하는 자산에 투자하도록 요구하는 원칙도 포함됨

## 라. 소비자 보호 규제

- 금융옴부즈만서비스(Financial Ombudsman Service; FOS)는 FCA의 권한하에 규제되는 모든 금융 서비스에 대한 단일 옴부즈만 제도로, 보험회사 및 보험 중개인은 FOS 가입이 의무임
- FOS는 1997년에 설립되었으며, 영국 내에서 보험에 가입하고 영국 법률의 적용을 받는 개인 또는 소규모 회사(연간 매출액이 650만 파운드 미만인 회사)가 제기한 보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만을 검토할 권한을 가짐

<sup>16)</sup> 기술적 준비금은 보험사가 계약 이행을 위해 미래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 및 관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적립한 준비금을 의미함

<sup>17)</sup> 매칭 조정은 보험회사가 연금 상품 등과 같은 장기 보험 계약의 미래 지급 의무에 필요한 자산과 부채를 시간적으로 매칭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으로, 보험회사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현금흐름을 확보하도록 설계된 제도임

- 2023/24 회계연도의 금융회사에 대한 신규 불만 건수는 329,125건으로, 이 중 47,010건이 보험에 관한 불만 건수였으며, 가장 많은 불만이 접수된 상품은 자동차/오토바이 보험임<sup>18)</sup>
  - 2023/24 회계연도의 FOS 수입 예산은 2억 4,450만 파운드였음
  - FCA의 승인을 받은 모든 금융 서비스 기업은 FOS의 결정 및 절차를 따라야 하는 한편, 불만을 제기한 소비자는 먼저 해당 회사에 직접 문제 해결을 요청해야 하며, 만족하지 못할 경우 옴부즈만의 개입을 요청할 수 있음
    - 2011년 FOS 개혁으로 기존의 2단계 불만 처리 절차<sup>19)</sup>가 폐지되어 보험회사가 고객 불만 고위 처리 담당자(senior complaint handler)를 지정해야 하는 요구사항이 추가됨
  - 소비자 불만은 보험 제공 회사의 영국보험협회인 ABI(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에 제기할 수도 있음
- 2012년 소비자 보험(공개 및 진술)법은 법률 위원회(Law Commission)의 권고를 바탕으로 보험법을 개정하여, 보험업계에서 이미 채택된 FOS 지침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 보험 신청 시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공개해야 할 의무를 폐지하고, 대신 보험회사의 질문에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 정확하고 완전한 답변을 할 의무를 도입함
  - 또한, 대리인이 보험사를 위해 행동하는지 또는 소비자를 위해 행동하는지를 구분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 연금 옴부즈만(Pensions Ombudsman; PO)은 1993년 연금제도법(Pension Scheme Act 1993)에 따라 고용 및 연금부 장관에 의해 임명되는 법정 직위로, 직장 및 개인 연금제도와 관련된 분쟁 및 불만을 조사함

## 마. 외국 자본의 보험시장 진입 규제

- 영국은 2020년 1월 23일 유럽연합(EU)을 탈퇴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과도기 기간이 끝난 후 외국 (재)보험회사가 영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영국 규제 당국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함
- 영국이 유럽경제지역(EEA) 회원국이었을 때는 다른 EEA 국가에 본사를 둔 보험사를 직접 승인할 수는 없었으나, 그 회사가 영국에서 지점 설립 또는 서비스 제공을 계획할 경우, 다른 회원국이 부여한 허가를 인정해야 했음
  - 과도기 기간 동안에는 EU 여권 권한을 통해 영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던 모든 (재)보험회사는 영향을 받지

<sup>18)</sup> FOS(2024), "Annual complaints data and insight 2023/24"

<sup>19)</sup> 기존 2단계 불만 처리 제도는 금융 서비스 기업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사람이 기업의 초기 대응에 불만이 있는 경우 먼저 기업 내에서 항소해야 했으며, 기업의 2차 대응 후에도 불만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만 FOS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었음

않았음

- PRA는 영국에서 영업 허가를 원하는 (재)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임시 허가 체제(Temporary Permissions Regime; TPR)를 도입했으며, 현재는 모든 (재)보험회사가 PRA 승인을 받아야만 영국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음
- 2021년 7월 8일, 영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서 본사가 한 서명국에 있는 금융 서비스 제공업체는 영국에 사무소를 두지 않고도 영국에서 보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됨

## 바. 보험회사 투자 규제

- SolvencyII는 신중한 투자자 원칙(prudent person principle)을 (재)보험사가 자체 자산을 투자할 때 준수해야 할 규제 표준으로 도입했으며, 이는 PRA 규칙집에 명시되어 있음
  - PRA 규정은 투자 포트폴리오 자산의 안전성, 품질, 유동성, 수익성, 다각화를 포함하며, 자산은 보험 계약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투자되어야 하고 접근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지화(localisation)되어야 함
  - SolvencyII는 신중한 투자 전략, 고품질 자산, 그리고 자산과 부채의 일치를 장려하며, 이는 지급여력 계산 시 고위험 자산에 위험 비용(risk charges)을 추가하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짐
- 2024년 6월, PRA는 영국의 보험 규제 체계를 SolvencyII로부터 일부 분리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함
  - 규정은 매칭 조정 규칙(보험사가 부채에 맞는 자산에 투자하도록 요구하는 원칙)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며, 보험회사들이 추가적인 투자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영국은 Solvency UK라는 새로운 체제를 도입하는 과정에 있으며, 이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어 2032년까지 SolvencyII에서 Solvency UK로 완전히 전환할 계획임

## 사. 의무보험

- 영국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생명보험이나 건강보험은 없으나, 제3자 책임보험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있음



〈표 4〉 영국 주요 의무보험

종류	내용
자동차 제3자 책임보험	영국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함 제3자 보험 없이 도로나 공공장소에서 운전하는 것은 불법임
고용주 책임보험	고용주가 되는 즉시 가입해야 하며, 보험금은 최소 5백만 파운드 이상이어야 하고 공인된 보험사에서 제공해야 함
핵 시설 운영자의 제3자 책임보험	원자력 제3자 책임에 관한 파리 협약 2004년 의정서와 원자력 제3자 책임에 관한 브뤼셀 보충 협약을 비준하고 발효함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원자력 시설법 1965년의 원자력 제3자 책임보험을 개정하여 손해배상액을 기존 £140m에서 £700m로 높임
반려견 소유자의 제3자 책임보험	Dangerous Dogs Act 1991에 따라 면제 대상견에 포함된 개 소유자는 가입해야 하며, 제3자를 다치게 한 경우, 다른 개에게 해를 끼친 경우, 다른 사람의 소지품이나 재산을 손상하거나 파손한 경우에 반려견에게 공격성 병력이 없는 한 제3자 배상책임이 적용될 수 있음
위험한 야생동물 소유자의 제3자 책임보험	1976년 제정한 위험 야생동물법에 따라 위험한 야생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제3자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현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함
승마 시설 운영자의 제3자 책임보험	승마 시설 운영자는 말을 타는 사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부상에 대해 보상하는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함
전문직 배상 책임보험	회계사에 대한 전문직 배상 책임 보험은 의무 사항이 아니지만, 특정 전문 기관에서는 회원에게 보험 가입을 요구함 민간 의료 전문가는 보건 및 관련 직업 (배상 조치) 명령 2013에 따라 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며, 이는 EU 법률을 구현한 것임. 변호사, 보험 중개인, 공인 토지거래사, 골치료사, 척추지압사, 민간 의료 전문가 및 클레임 관리자의 경우 가입해야 함
신용 조합 임직원의 사기 및 부정행위에 대한 보험	임직원의 사기 또는 기타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나 책임으로부터 신용 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해야 함
특정 상황에서 농장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	농가, 별채 및 농장 건물을 화재로 인한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해 완전한 가치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농가, 별채 및 농장 건물 전체 또는 일부가 화재로 인해 파손되거나 손상될 경우, 화재로 인한 손상을 복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복구 또는 교체 작업을 수행해야 함
항공 및 우주 위험에 대한 책임보험	항공기 운영자는 최대 이륙 질량(Maximum Take-Off Mass; MTOM)과 탑승 승객 수에 따른 최소 수준의 보험에 가입해야 비행이 가능하며, 보험은 승객, 수하물, 제3자 보험, 화물, 전쟁 및 테러 위험을 보장해야 함
기차, 역, 철도 네트워크 및 유지보수 시설 운영자의 책임보험	철도 및 도로 사무소(Office of Rail and Road)의 라이선스 지침에 따르면, 모든 철도 열차, 역, 네트워크 및 유지보수 시설의 운영자는 최소 1억 5,500만 파운드의 제3자 책임 보험을 유지해야 함
폐기물 운송(재정 보증도 허용)	폐기물의 수출 및 수입을 원하는 자는 환경청(Environment Agency)에서 승인한 재정 보증 또는 보험을 반드시 보유해야 함
해양 유류 오염에 대한 선주 책임보험 (재정 보증 또는 보험)	영국은 흔히 CLC 협약으로 불리는 1969년 유류 오염 손해에 대한 민사 책임에 관한 국제 협약의 서명국으로, 이 조약에 따라, 2,000톤 이상의 유류를 화물로 운송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유류 유출로 인한 최대 책임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기타 재정적 보증을 유지해야 함
임상 시험 책임보험	영국에서 임상 시험은 2004년 인간 사용을 위한 의약품 (임상 시험) 규정에 의해 규제되며, 시험이 승인되기 위해 보험이 필요함. 그러나 최소 보장 한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자료: AXCO(2023), "Non-Life Insurance Market Reports"; gov.uk; FCA, Claims.co.uk를 기초로 작성함

## 아. 사회보장법

- 영국은 1942년 발간된 사회보험 및 연관 서비스에 관한 부처 간 위원회 보고서(Beveridge Report)를 통해 현재 보편적 사회보장제도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는 사회보험 모델에 기초하고 있음
  - 이후 1946년에 국가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 및 국민보건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 Act)이 제정되어 1948년에 발효됨
    - 급여세 및 국가보험료(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NICs)를 도입하여 연금과 기본 국가연금 제도를 재정 지원하고, 기존의 연금, 건강보험 및 실업보험 제도를 폐지함
  - 현재 사회보장제도는 주로 1992년 사회보장 기여 및 혜택법 및 사회보장 행정법과 2012년 복지 개혁법(Welfare Reform Act)에 의해 규율됨
-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과 사회보조를 결합한 체계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주요 내용은 소득 상실 기간 동안 소득 제공(질병 및 실업 포함), 은퇴 후 연금 지급, 장애로 인한 비용 지원, 저소득 가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있음
  - 산업재해제도(Industrial Injuries Scheme) 및 고용주 책임제도(Employers' Liability System)는 업무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별도로 보상함

〈표 5〉 영국 주요 사회보장법

연도	법률 제정 관련 내용
19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 : 급여세 및 국가보험료를 도입하여 연금과 기본 국가연금제도 재정 지원, 기존의 연금과 건강보험 및 실업보험 제도 폐지</li> <li>• 국가보건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 Act) : NHS 설립</li> </ul>
19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 기여 및 혜택법(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and Benefits Act), 사회보장 행정법(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Act)</li> </ul>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 부양, 연금 및 사회보장법(Child Support, Pensions and Social Security Act) : 국가연금 SERPS를 S2P로 개편 및 재구조화, 저소득자를 위한 소득 관련 연금 수준 개선 및 특정 돌봄 제공자와 장기 장애인과 같은 비소득자에게 추가 연금 제공</li> </ul>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 개혁법(Welfare Reform Act) : 고용 및 지원 수당 도입하여 새로운 청구자에 대해 무능력 수당 및 장애 기반 소득 지원을 대체</li> </ul>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 개혁법(Welfare Reform Act) : 고용연금부 장관에게 소득 지원을 폐지하고 구직자 수당 또는 고용 및 지원 수당으로 이전시킬 권한 부여</li> </ul>

〈표 5〉 계속

연도	법률 제정 관련 내용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 개혁법(Welfare Reform Act)</li> <li>: 6가지 근로 연령 혜택을 단일 유니버설 크레딧(UC)으로 통합</li> </ul>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금법(Pensions Act)</li> <li>: 2016년 4월부터 단일 국가연금제도를 도입하며 S2P 폐지, 2026~2028년 동안 은퇴 연령을 67세로 상향 조정, 국가연금 수령 연령의 주기적 검토 프레임워크 도입</li> </ul>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 개혁 및 고용법(Welfare Reform and Work Act)</li> <li>: 완전 고용 달성 및 복지 상한선을 GBP 26,000에서 런던 내 GBP 23,000로, 런던 외 GBP 20,000로 낮추기 위한 목적</li> </ul>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 사망휴가 규정(Parental Bereavement Leave Regulations)</li> <li>: 자녀 사망 후 56주 이내에 부모(근로자)에게 최대 2주의 부모 사망휴가를 법적으로 보장</li> </ul>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성휴가(사망) 법(Paternity Leave (Bereavement) Act)</li> <li>: 자녀의 어머니가 사망할 경우, 상실한 아버지 및 비출산 파트너에게 즉각적인 부성휴가를 자동적으로 받을 권리 부여</li> </ul>

자료: AXCO(2023), "Non-Life Insurance Market Reports"를 기초로 작성함

# III

## 보험시장 현황

### 1. 전체 보험시장 현황

- Swiss Re<sup>20)</sup>에 따르면 영국 보험시장은 2023년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세계 보험시장의 5.2%를 차지하며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보험시장 규모를 기록함
  - 2023년 세계 보험시장의 수입보험료 규모는 7조 1,860억 미국 달러이며, 영국 보험산업의 수입보험료는 3,750억 미국 달러(5.2%)로, 미국(44.9%), 중국(10.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음
  - 업권별로 보면 2023년 영국 생명보험 시장은 세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의 8.2%를 차지하여 3위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으며, 손해보험 시장은 세계 손해보험 수입보험료의 3.2%를 차지하여 4위의 규모를 기록하였음
- 2023년 기준 영국의 보험침투도는 9.7%이며, 보험밀도는 4,759 미국 달러로, 유럽 선진시장<sup>21)</sup>에서 중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음
  - 영국의 보험침투도는 유럽 선진시장에서 핀란드(10.0%)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험밀도는 네덜란드(5,216 미국 달러) 다음으로, 유럽 선진시장에서 6위를 차지하고 있음
  -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의 보험침투도는 각각 7.1%와 2.6%이며,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의 보험밀도는 각각 3,466 미국 달러, 1,294 미국 달러임

<sup>20)</sup> Swiss Re(2024), "World insurance", sigma 3/2024

<sup>21)</sup> Advanced EMEA(Europe, the Middle East and Africa), Swiss Re에서는 Emerging EMEA와 Advanced EMEA로 구분함

〈표 6〉 유럽 선진시장의 보험산업 시장규모, 보험침투도 및 보험밀도 비교(2023년)

구분	세계순위	점유율(%)	시장규모 (백만 미국 달러)	보험침투도(%)	보험밀도 (미국 달러)
영국	3	5.2	374,936	9.7	4,759
프랑스	5	3.9	282,800	8.7	3,867
독일	6	3.4	245,464	5.5	2,910
이탈리아	9	2.2	159,442	7.1	2,708
네덜란드	11	1.3	93,149	8.3	5,216
스페인	13	1.2	83,442	5.3	1,744
스위스	17	0.9	61,187	6.9	6,830
덴마크	19	0.6	44,374	11.0	7,485
스웨덴	20	0.6	44,201	7.4	4,185

주: 시장규모는 전체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자료: Swiss Re(2024), "World insurance", sigma 3/2024

- 영국 보험시장은 2023년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 비중이 각각 63.2%, 36.8%로 최근 몇 년간 생명보험업 비중이 하락했고 손해보험업 비중이 상승함
  - 생명보험업 수입보험료는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 크게 하락(전년 대비 -11%)하여, 2020년 이후 전체 보험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하회함
  - 영국 손해보험업 수입보험료는 2019년 감소하였으나 2020년 이후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보험산업 대비 비중은 2018년 27.9%에서 2023년 36.8%로 상승함

〈표 7〉 영국 보험산업 업권별 수입보험료 변화 추이

(단위: 백만 GBP,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생명보험업	205,654 (72.1)	209,122 (73.3)	186,118 (70.6)	184,417 (67.9)	172,879 (63.5)	190,520 (63.2)
손해보험업	79,752 (27.9)	76,169 (26.7)	77,466 (29.4)	87,005 (32.1)	99,309 (36.5)	110,960 (36.8)
전체	285,406	285,291	263,584	271,422	272,188	301,480

주: ( )안은 구성비임  
 자료: Swiss Re, "World insurance", 각 호

- 2023년 현재 영국 PRA로부터 생명보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는 139개이며, 손해보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는 257개임

- 브렉시트 이후 SRO(Supervised Run-Off)<sup>22)</sup>에 따라 생명보험업 허가를 받은 유럽 경제 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 보험회사는 12개임
  - PRA는 보험회사가 SRO 상태에 들어간 후 28일 이내에 '런오프 계획(Run-Off Plan)'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데, 보험회사는 더 이상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며 기존 계약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고 최종적으로 사업을 종료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함

## 2. 생명보험시장 현황

- 2023년 기준 영국의 생명보험시장 수입보험료는 2,158억 GBP이며, 전년 대비 13.4% 증가함
  - 수입보험료의 큰 폭 증가는 주로 연금리스크 이전 시장(PRT; Pension Risk Transfer)에서 거두어들인 보험료 덕분이며 연금(68% 증가)과 개인연금(11.6% 증가)에서도 큰 폭으로 증가함
    - 확정급여형(DB) 연금제도는 과거 영국 기업 연금의 주요 형태였으나, 고령화 등으로 인한 재무적 리스크<sup>23)</sup>가 증가함에 따라 연금지급의무를 생명보험회사로 이전하는 연금리스크 이전 시장이 성장하고 있음
    - 지급된 총 청구액(Claims)은 7.1% 감소했지만 소득보상보험(Income Protection)이 31.8% 증가함
    - 보험회사의 지급능력은 2023년 말~ 2024년 초에 190%에 달했으며 이는 2022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임

〈표 8〉 영국 보험산업 업권별 수입보험료 추이<sup>1)</sup>

(단위: 백만 GBP,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생명보험업	215,567 (83.3)	200,355 (82.2)	177,373 (80.0)	194,351 (80.8)	190,229 (78.8)	215,757 (78.3)
손해보험업	43,355 (16.7)	43,445 (17.8)	44,463 (20.0)	46,081 (19.2)	51,295 (21.2)	59,832 (21.7)
전체	258,922	243,800	221,836	240,432	241,524	275,589

주: 1) 재보험회사 관련 수입보험료 및 보험금 등을 포함한 따른 업권별 수입보험료로, 〈표 7〉과는 금액 차이가 있음

2) ( )안은 구성비임

3) 해당 표는 PA(Personal Accident)와 헬스케어 수치를 제외했고 재보험 인수 보험료를 포함한 수치로, 〈표 7〉과 비교해 금액의 차이가 있음

자료: AXCO(2024), "Life and Benefit Insurance Market Reports"; AXCO(2024), "Non-Life Insurance Market Reports"

- 영국 생명보험회사의 자산 및 부채 현황을 보면, 2020년 이후로 자산에서는 지분투자(Participations) 비중이, 부채에서는 부채의 파생상품(Derivatives in Liabilities) 비중이 소폭 증가하고 있음

<sup>22)</sup> 보험회사가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기존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며 사업을 종료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그 과정에서 영국의 건전성 규제 기관인 PRA의 감독을 받게 됨

<sup>23)</sup> 고령화로 근로자의 기대수명이 늘어났고, 회사 상황과 관련 없이 연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리스크를 의미함

- 자산에서 지분투자를 제외한 투자자산 및 현금(Investment and Cash excluding participations) 부문 비중이, 부채에서는 기술적 준비금(지수형 및 연계형 제외)(Technical Provisions(excl. Index-Linked and Unit-Linked)) 항목에서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

〈표 9〉 영국 생명보험 자산 및 부채 변화 추이(대차대조표)

(단위: 10억 GB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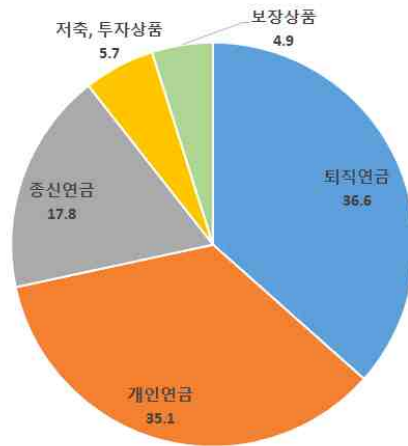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자산	투자자산 및 현금(지분투자 제외) (Investment and Cash excluding participations)	금액	2,677	2,940	3,130	2,918	2,697
		비중	30.9	31.8	32.6	28.7	28.6
	지수형 및 연계형 자산 (Index-Linked and Unit-Linked Assets)	금액	4,544	4,771	4,728	5,301	4,861
		비중	52.5	51.7	49.3	52.1	51.6
	재보험 자산 (Reinsurance Recoverables)	금액	774	833	906	1,033	942
		비중	8.9	9.0	9.4	10.1	10.0
	보험 관련 채권 (Insurance related Receivables)	금액	235	264	302	302	285
		비중	2.7	2.9	3.1	3.0	3.0
	지분 투자 (Participations)	금액	366	358	447	555	543
		비중	4.2	3.9	4.7	5.4	5.8
	운영자산 및 기타 (Operating Assets and Other)	금액	60	66	80	69	88
		비중	0.7	0.7	0.8	0.7	0.9
	자산 합계	금액	8,656	9,233	9,592	10,178	9,415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부채	기술적 준비금(지수형 및 연계형 제외) (Technical Provisions(excl. Index-Linked and Unit-Linked))	금액	2,531	2,716	2,800	2,820	2,384
		비중	29.2	29.4	29.2	27.7	25.3
	기술적 준비금(지수형 및 연계형) (Technical Provisions(Index-Linked and Unit-Linked))	금액	4,940	5,230	5,249	5,923	5,470
		비중	57.1	56.6	54.7	58.2	58.1
	보험 관련 채무 (Insurance related payables)	금액	344	373	423	449	412
		비중	4.0	4.0	4.4	4.4	4.4
	부채에 포함된 파생상품 (Derivatives in Liabilities)	금액	145	227	386	260	470
		비중	1.7	2.5	4.0	2.6	5.0
	기타 부채 (Other Liabilities)	금액	194	218	258	249	225
		비중	2.2	2.4	2.7	2.4	2.4
순자산(자산 - 부채) (Excess Assets over Liabilities)	금액	501	470	477	478	454	
	비중	5.8	5.1	5.0	4.7	4.8	
부채 합계	금액	8,656	9,233	9,592	10,178	9,415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Bank of England(2024. 10. 10), "Insurance aggregate data quarterly report"

- 영국 생명보험시장의 종목별 수입보험료를 살펴보면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상품의 비중이 높는데 이는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 DB형 연금리스크 이전(PRT; Pension Risk Transfer) 등이 원인임
  - 퇴직연금(36.6%), 개인연금(35.1%), 종신연금(17.8%) 등 연금상품의 비중이 90%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임
  -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Auto-Enrolment)<sup>24)</sup>가 2012년 도입되었는데, 동 제도로 인해 퇴직연금 가입률이 크게 증가(2011년: 약 47% → 2021년: 약 79%)함
  - 영국 1위 생명보험회사 L&G에 따르면 영국의 연금리스크 이전 시장규모는 2023년 120억 파운드에서 2024년 400억 파운드로 급성장 중이며, 향후 10년 동안 500~650억 파운드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1〉 영국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비중(2022년)

(단위: %)



자료: Bank of England(2024), "Insurance aggregate data annual report"

- 영국 생명보험시장에는 2023년 기준 85개의 생명보험회사가 영업하고 있으며,<sup>25)</sup> 상위 5개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이 약 65%임
  - 2023년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Legal & General UK Group, AVIVA UK Group, Phoenix Life Assurance Limited, Lloyds Banking UK Group, Rothesay Life PLC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29.7%, 11.3%, 10.4%, 7.5%, 6.1%임
    - 5위의 Rothesay Life PLC의 경우, 2023년에 12개의 연금 PRT 상품을 인수하여 127억 파운드의 신규 사업 보험료를 창출해 시장점유율이 2022년 1.9%에서 2023년 6.1%로 급성장함

<sup>24)</sup> 모든 기업에서 22세 이상, 연 1만 파운드 이상 소득을 가진 직원을 고용주를 통해 자동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하는 제도임

<sup>25)</sup> Bank of England(2024), "Insurance aggregate data annual report"



〈표 10〉 영국 생명보험회사 수입보험료 및 시장점유율

(단위: 백만 GBP, %)

순위	회사명	2023년		2022년		성장률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	
1	Legal & General UK Group	63,107	29.7	67,928	36.6	-7.1
2	AVIVA UK Group	24,023	11.3	20,379	11.0	17.9
3	Phoenix Life Assurance Limited	22,100	10.4	17,288	9.3	27.8
4	Lloyds Banking UK Group	15,827	7.5	14,913	8.0	6.1
5	Rothesay Life PLC	12,976	6.1	3,580	1.9	262.5
6	The Royal London Mutual Insurance Society Limited UK Group	11,164	5.3	10,663	5.7	4.7
7	St. James's Place UK PLC	10,933	5.2	11,203	6.0	-2.4
8	BlackRock UK Group	10,633	5	12,138	6.5	-12.4
9	Pension Insurance Corporation plc	6,949	3.3	4,095	2.2	69.7
10	Managed Pension Funds Limited	5,029	2.4	4,750	2.6	5.9
합계		212,467	100.0	185,764	100.0	14.4

자료: AXCO(2024), "Life and Benefit Insurance Market Reports"

○ 영국 보험협회(ABI;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에 따르면 2020년 말 영국 생명보험시장의 판매채널 비중은 47%가 직접판매, 35%가 독립적인 중개인이었음

- 장기보험과 저축상품의 경우 독립적인 채널이 매출의 72%를 차지했고 14%만이 설계사 없이 판매됨
- FCA의 자료에 따르면 소득보상보험(Income Protection)에서 2023년 매출의 약 92%가 권고 채널(Advised Channels)<sup>26)</sup>을 통해, 나머지 8%는 비권고(Non-Advised) 채널을 통해 이루어졌음
  - 특약으로 판매된 중증 질환의 경우, 매출의 82.5%가 권고 채널, 17.5%가 비권고 채널을 통해 이루어졌음

○ 영국 생명보험업의 자산은 채권 투자가 절반 가까이(44.5%) 차지하고 있으며, 생명보험 시장의 총자산은 코로나 이후 역성장함

- PRA의 데이터에 따르면 영국 생명보험 회사의 자산은 대부분 안전한 곳에 투자되는데, 2024년 3월 말 채권(국채 또는 회사채) 44.5%, 현금 및 예금 11%, 모기지 및 대출 11.7%를 투자했다고 보고함
  - 추가로 자산의 23.8%가 집합투자사업(Collective Investment Undertakings)에 할당되었으며 주식은 포트폴리오의 5.1%에 불과함

<sup>26)</sup> 보험상품을 고객에게 제공할 때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판매 경로를 의미함. 비권고 채널은 고객이 전문가의 조언 없이 스스로 보험상품을 선택하고 구매하는 온라인 플랫폼, 다이렉트 보험회사 등을 의미함

〈표 11〉 영국 생명보험업 운용자산 변화 추이

(단위: 백만 GBP,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투자 범주	국채 (Government Bonds)	금액	572,398	564,754	580,804	559,382	439,687	445,490
		구성비	18.5	17.2	16.9	16.1	14.1	14.7
	회사채 (Corporate Bonds)	금액	911,510	1,026,192	1,085,129	1,057,912	925,325	889,017
		구성비	29.4	31.2	31.6	30.4	29.8	29.3
	자본 (Equity)	금액	339,837	297,644	255,872	225,346	188,629	162,179
		구성비	11.0	9.0	7.4	6.5	6.1	5.3
	집합투자사업 (Collective Investment Undertakings)	금액	583,904	622,836	647,956	751,849	717,982	725,648
		구성비	18.8	18.9	18.9	21.6	23.1	23.9
	담보부증권 (Collateralised Securities)	금액	55,469	53,277	51,917	68,205	75,169	72,201
		구성비	1.8	1.6	1.5	2.0	2.4	2.4
	현금 및 예금 (Cash and Deposits)	금액	270,502	298,054	332,854	339,095	330,832	326,512
		구성비	8.7	9.1	9.7	9.7	10.6	10.7
	모기지 및 대출 (Mortgages and Loans)	금액	295,307	361,023	420,355	421,725	370,393	367,873
		구성비	9.5	11.0	12.2	12.1	11.9	12.1
	부동산 (Property)	금액	69,928	67,317	61,150	60,636	61,213	49,603
		구성비	2.3	2.0	1.8	1.7	2.0	1.6
합계	금액	3,098,854	3,291,097	3,436,037	3,484,149	3,109,232	3,038,522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Bank of England(2024. 10. 10), "Insurance aggregate data quarterly report"

### 3. 손해보험시장 현황

○ 2023년 기준 영국 손해보험시장의 수입보험료는 693억 GBP<sup>27)</sup>이며, 전년 대비 16.3%의 수입보험료 성장률을 보임

- PA 및 의료를 제외한 수입보험료도 2023년 기준 598억 GBP이며, 전년 대비 16.6%의 수입보험료 성장률을 보여 실질 GDP 성장률(0.1%) 대비 높은 수준을 보임

<sup>27)</sup> 〈표 7〉이 아닌 〈표 8〉에 따른 수입보험료임

- 손해보험회사의 자산에서는 투자자산 및 현금(지분투자 제외)의 비중이 63.1% 정도로 높으며 재보험 자산(Reinsurance Recoverables)(23.7%)이 뒤를 잇고 있음
  - 재보험 자산(2019년: 21.5% → 2023년: 23.7%) 및 보험 관련 채권(Insurance related Receivables) (2019년: 4.6% → 2023년: 6.1%)의 비중이 증가추세임
- 부채에서는 기술적 준비금(지수형 및 연계형 제외)(Technical Provisions(excl. Index-Linked and Unit-linked)) 이 60.2%, 순자산(자산-부채)(Excess Assets over Liabilities)이 27.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보험 관련 채무(Insurance related Payables)(2019년: 4.4% → 2023년: 5.8%) 및 순자산(자산-부채)(Excess Assets over Liabilities)(2019년: 4.6% → 2023년: 6.1%)의 비중이 증가추세임

(표 12) 영국 손해보험 자산 및 부채 변화 추이(대차대조표)

(단위: 10억 GBP,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자산	투자자산 및 현금(지분투자 제외) (Investment and Cash excluding participations)	금액	598	552	573	593	685
		비중	65.0	64.8	64.4	65.7	63.1
	연계형 및 지수형 자산 (Unit-linked and Index-Linked Assets)	금액	-	-	-	-	-
		비중	-	-	-	-	-
	재보험 자산 (Reinsurance Recoverables)	금액	197	181	204	199	257
		비중	21.5	21.2	22.9	22.1	23.7
	보험 관련 채권 (Insurance related Receivables)	금액	42	41	41	43	67
		비중	4.6	4.8	4.6	4.8	6.1
	지분 투자 (Participations)	금액	52	48	41	38	32
		비중	5.7	5.6	4.6	4.2	3.0
운영자산 및 기타 (Operating Assets and Other)	금액	30	31	31	30	45	
	비중	3.3	3.6	3.5	3.3	4.2	
자산 합계	금액	920	852	890	902	1,085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부채	기술적 준비금(지수형 및 연계형 제외) (Technical Provisions(excl. Index-Linked and Unit-Linked))	금액	562	507	554	543	653
		비중	61.1	59.5	62.3	60.2	60.2
	기술적 준비금(지수형 및 연계형) (Technical Provisions(Index-Linked and Unit-Linked))	금액	-	-	-	-	-
		비중	-	-	-	-	-
	보험 관련 채무 (Insurance related payables)	금액	40	40	39	42	63
		비중	4.4	4.7	4.4	4.6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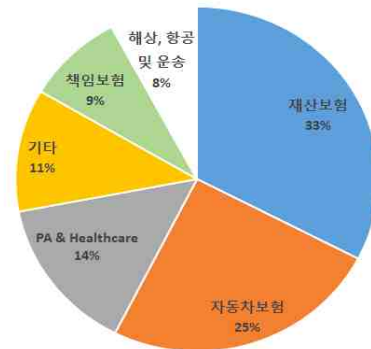
〈표 12〉 계속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부채	부채에 포함된 파생상품 (Derivatives in Liabilities)	금액	3	5	6	3	5
		비중	0.3	0.6	0.7	0.3	0.5
	기타 부채 (Other Liabilities)	금액	82	79	71	71	66
		비중	8.9	9.2	8.0	7.8	6.1
	순자산(자산 - 부채) (Excess Assets over Liabilities)	금액	234	222	219	244	298
		비중	25.5	26.0	24.6	27.0	27.4
	부채 합계	금액	920	852	890	902	1,085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Bank of England(2024. 10. 10), "Insurance aggregate data quarterly report"

- 종목별 수입보험료 비중은 재물보험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의 비중이 높음
  - 재물보험(33%)과 자동차보험(25%)의 합이 손해보험 전체의 절반을 넘으며, 건강보험이라 할 수 있는 PA & Healthcare 비중이 14%로 다음을 차지하고 있음

〈그림 2〉 영국 손해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비중(2022년)  
(단위: %)



자료: AXCO(2024), "Non-Life Insurance Market Reports"

- 영국 손해보험시장은 Aviva, Direct Line과 같은 대형 그룹이 있으나, 상위 5개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최근 5년 동안 30%를 하회하고 있음
  - 2022년 수입보험료 기준 Aviva(10.2%), Direct Line(5.7%), Chubb European(4.0%), AXA(3.9%), Provident Assoc(3.3%) 등이 각각 1~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5개사 점유율은 약 30% 미만임
  - 상위 10개사 점유율도 2019년엔 50%였으나 2023년에는 41% 정도로, 손해보험회사의 대형그룹사 집중도는 낮아지는 추세라고 볼 수 있음

〈표 13〉 영국 손해보험회사별 수입보험료 및 시장점유율

(단위: 백만 GBP, %)

순위	회사명	2023년		2022년		성장률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	
1	Aviva Insurance Limited	7,057	10.2	6,130	10.5	15.1
2	Direct Line Insurance UK Group	3,918	5.7	3,094	5.3	26.6
3	Chubb European Group SE	2,767	4.0	-	-	-
4	AXA Insurance UK plc	2,692	3.9	2,278	3.9	18.2
5	British United Provident Assoc Uk Grp	2,287	3.3	2,006	3.4	14.0
6	Allianz Insurance plc	2,159	3.1	1,995	3.4	8.3
7	RSA Insurance UK Group	2,090	3.0	2,465	4.2	-15.2
8	American International Group UK Limited	2,082	3.0	1,917	3.3	8.6
9	National Farmers Union Mutual Insurance Society Limited	1,720	2.5	1,723	3.0	-0.2
10	Liverpool Victoria Insurance Company Limited	1,680	2.4	1,430	2.5	17.5
	합계	69,258	100.0	58,313	100.0	18.8

자료: AXCO(2024), "Non-Life Insurance Market Reports"

○ 손해보험업 판매채널별 비중은 중개인(브로커)가 50%로 절반을 차지하며, 직접판매 비중이 2021년 32%에서 2023년 34%로 소폭 증가하고 있음

- 상업 분야(Commercial Lines)에서는 중개인이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지만, 중소기업을 위한 간단한 보험의 경우 직접 및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고 있음

〈표 14〉 영국 손해보험 판매채널별 비중 변화

(단위: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직접판매	36	41	41	44	48	49	-	32	33	34
중개인(브로커)	36	35	34	36	33	33		50	50	50
대리점	3	3	3	3	3	3		2	2	2
방카슈랑스	11	10	10	9	8	8		7	7	6
기타	14	12	12	8	8	7		9	8	8

주: 1) 판매채널별 비중은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2) EU 보험 유통 지침(IDD)은 보험 유통(규제 활동 및 기타 개정) 명령 2018의 통과를 통해 영국법으로 이전되어 2018년 10월 1일부터 발효됨. 이에 따라 2019년까지는 Statista의 데이터를, 2021년부터는 AXCO 데이터를 차용함

3) 기타에는 유틸리티, 소매업체 및 친화 그룹과 같은 채널이 포함됨

자료: Statista(2024, 11), "Distribution of general insurance personal lines split by distribution channel in the United Kingdom (UK) from 2012 to 2019"; AXCO(2024), "Non-Life Insurance Market Reports"

○ 영국 손해보험업 자산운용은 채권과 집합투자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2023년 자산운용은 채권이 62.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집합투자사업(14.6%), 현금 및 예금(7.5%) 순임
  - 국채는 전체 운용자산 중 2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채권 내 구성비는 약 47.6%임
- 2018년 이후로 손해보험업의 운용자산 구성비를 볼 때 국채 및 담보부증권의 비중이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회사채 및 자본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음

〈표 15〉 영국 손해보험업 운용자산 변화 추이

(단위: 백만 GBP,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투자 범주	국채 (Government Bonds)	금액	161,574	153,182	155,261	167,424	202,949	225,680
		구성비	24.8	25.5	25.3	26.4	29.4	29.9
	회사채 (Corporate Bonds)	금액	238,451	202,525	207,048	215,007	228,100	248,146
		구성비	36.6	33.7	33.8	33.9	33.0	32.8
	자본 (Equity)	금액	66,528	63,369	53,248	55,340	45,942	43,186
		구성비	10.2	10.6	8.7	8.7	6.6	5.7
	집합투자사업 (Collective Investment Undertakings)	금액	80,042	79,546	91,807	90,132	94,055	110,375
		구성비	12.3	13.2	15.0	14.2	13.6	14.6
	담보부증권 (Collateralised Securities)	금액	27,987	28,641	29,543	31,131	33,418	39,114
		구성비	4.3	4.8	4.8	4.9	4.8	5.2
	현금 및 예금 (Cash and Deposits)	금액	47,905	44,400	46,650	50,398	58,547	56,975
		구성비	7.3	7.4	7.6	7.9	8.5	7.5
	모기지 및 대출 (Mortgages and Loans)	금액	22,213	20,336	20,494	17,339	19,113	22,450
		구성비	3.4	3.4	3.3	2.7	2.8	3.0
	부동산 (Property)	금액	7,223	8,511	9,100	8,251	8,951	9,467
		구성비	1.1	1.4	1.5	1.3	1.3	1.3
	합계	금액	651,922	600,511	613,150	635,022	691,076	755,394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Bank of England(2024. 10. 10), "Insurance aggregate data quarterly report"

# IV

## 시사점

- 2023년 영국의 GDP는 약 3조 3,320억 달러 규모로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있으며,<sup>28)</sup> 2022년 기준 세계 8위 수준 무역 국가임
  - 영국은 금융, 유통 등 서비스 산업과 생명과학, 항공우주, IT 등 첨단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73년 오일 쇼크 이전까지 비교적 높은 성장을 지속하였음
  - 산업구조의 경우 1970년대에는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였으나, 이후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경제구조가 재편되어 왔음
  - 런던 금융시장은 뉴욕과 함께 세계 2대 금융시장의 하나로, 금융업은 부가가치, 고용, 세금 등의 측면에서 다양하게 영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음
- 영국은 2012년 금융감독청(FCA)과 건전성감독청(PRA)으로 구성된 이중 규제 기관이 설립되었으며, (재)보험회사에 대한 자본 요건은 SolvencyII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었으며, 2022년 10월 19일부터 물가상승률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짐
  - PRA는 영국 중앙은행의 자회사로, 예금기관, 보험회사, 대형 투자 단체와 같은 중요한 회사로 간주되는 기업들의 건전성 규제를 담당하며, FCA는 PRA의 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투자 회사와 보험 중개인 등의 재무 건전성을 관리함
  - SolvencyII와 PRA 규칙집의 요구사항에 따르면, 모든 보험회사는 SCR의 25% 이상, 45% 이하를 유지해야 하는 MCR을 가져야 함
- 영국의 보험산업은 2023년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세계 보험시장의 5.2%를 차지하며 미국(44.9%)과 중국(10.1%)에 이은 세계 3위 시장으로, 연금상품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임
  - 생명보험시장과 손해보험시장 모두 2023년 수입보험료 상승률이 두자릿 수를 기록하며 성장했으나 시장 규모는 2018년 이래로 정체되어 있는 양상임
  - 생명보험시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시장규모가 축소되었으나, 손해보험시장의 경우 코로나 19 기간에도 꾸준히 성장해왔음

<sup>28)</sup> IMF(2023. 10),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23"

## ■ 저자약력

임석희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 박사과정 수료 / 연구원  
E-mail : shlim@kiri.or.kr

정수진 한양대학교 응용경제학 석사 / 연구원  
E-mail : jungsj@kiri.or.kr